

2013년 서울경제 전망

2012. 12. 10 제130호

박희석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III. 서울의 4/4분기 기업 체감경기
- IV. 2013년 서울경제 전망
- V. 요약 및 시사점

부록: 2012년 4/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불안요인으로 성장 탄력성 약화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와 선진국 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세계경제는 2013년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10월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하였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또한 10월에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였다. 총 「취업자수」는 10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반면에 청년층은 9.4% 감소하였다.

소비자 체감경기는 미미한 회복세이나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2년 4/4분기 83.8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내구재 및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각각 0.3p, 3.9p, 4.2p 상승을 나타내 소비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개선 기대감이 상승하고 물가 불안 심리도 안정되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업황실적지수」가 72.8을 기록하는 등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제조업 실적·전망지수」가 각각 5.4p, 9.9p 하락하여 모두 74.0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업 경영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하반기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서울경제는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上中下高’ 예상

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3.0%로 전망되며 상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지출」은 2.6%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8%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2012년 하반기에 이어 2013년 상반기 공공부문의 고용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전년대비 0.1%p 감소한 4.4%로 예상된다.

청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향후 경제회복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업종 보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음식·숙박 등 관광 연계 사업과 첨단·특허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지원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유로위기 장기화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인 성장세 약화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 지속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존 중심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최근 미국경제는 실업률 하락, 주택가격 상승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유로존 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당분간 경기 회복세 둔화 전망
- 선진국 금융시장 불안과 재정감축의 불확실성 등으로 선진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흥시장국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4%로 전망

- OECD 경제전망(2012년 11월)에 따르면,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2년보다 0.5%p 높은 3.4%로 예상
- 이는 지난 5월에 제시한 전망치(4.2%)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유로지역의 채무위기와 미국의 재정 긴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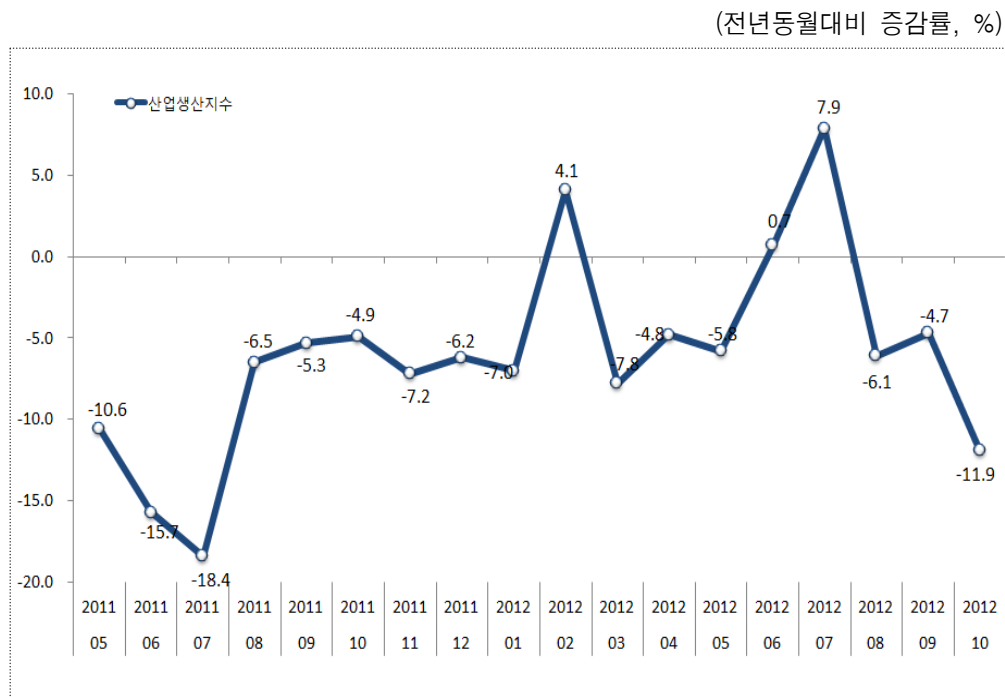
□ 국내 경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 성장이 지연된 가운데 대선 등 정치적 변수 존재

-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2012년 하반기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3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세계경제 성장 가능성으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호전 예상

2012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비, 고용 모두 부진

□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향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2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11.9%로 3개월 연속의 저성장 기조
- 자본재 및 중간재, 소비재 생산도 하락세로 2012년 10월에 각각 -26.1%, -13.2%, -8.3% 증가율을 기록
- 「산업생산지수」의 약세는 2012년 9월 8.4% 성장을 보인 자본재 생산이 한달만에 -34.5%p 급격히 하락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1년 이상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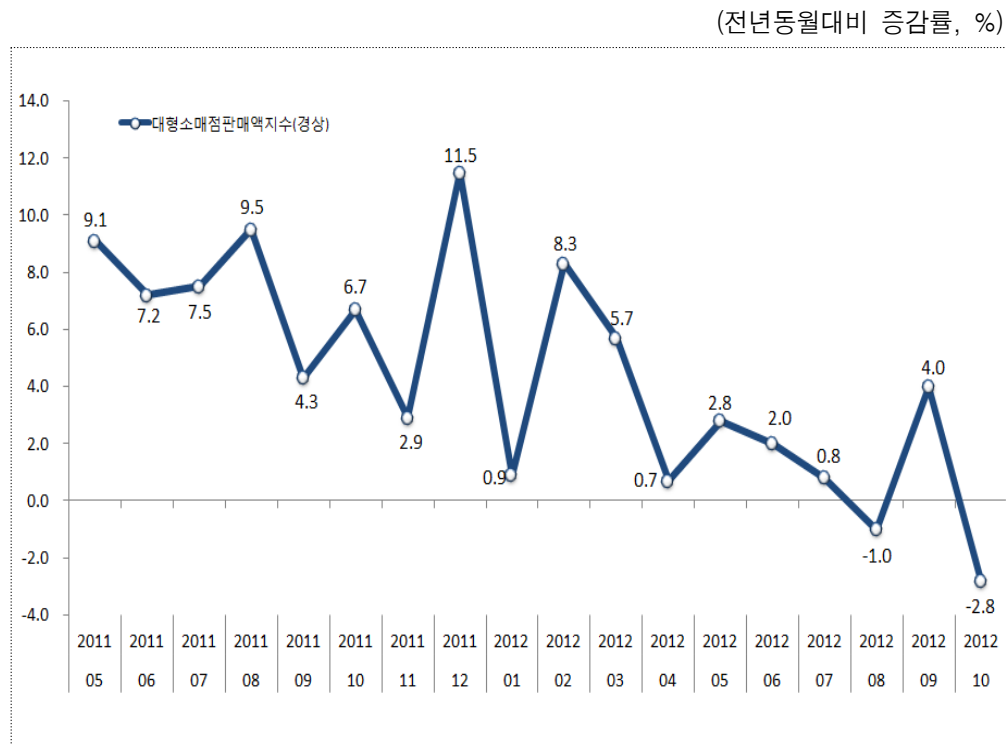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율은 10월에 최저치를 기록

-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2년 10월 전년동월대비 -2.8% 기록
-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5.1%로 각각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2012년 9월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상승은 추석연휴로 인한 계절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전반적으로 서울의 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 시민의 소비 기대심리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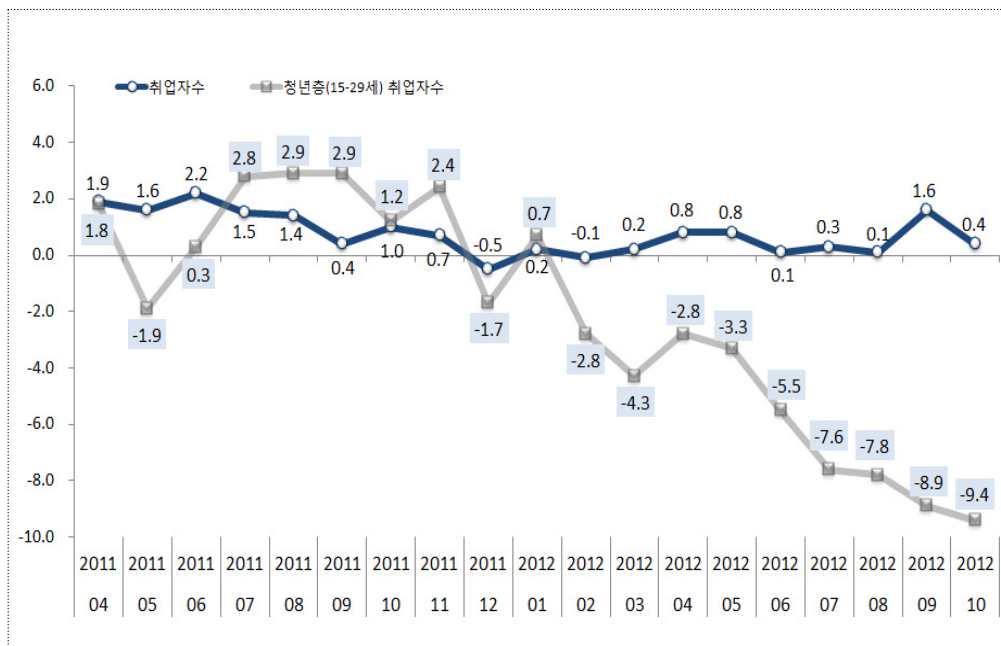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서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소폭 상승, 「청년층 취업자수」는 계속 감소세

- 2012년 10월 서울의 총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한 5,043천명
 - 10월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1.2%p 감소하였으나 최근 3개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0.7%로서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세 지속
- 2012년 10월 서울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한 854천명
 - 2012년 1월 이후 서울의 총 취업자수 증가율은 평균 0.4%를 보이는 반면 청년층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평균 -5.2%로 급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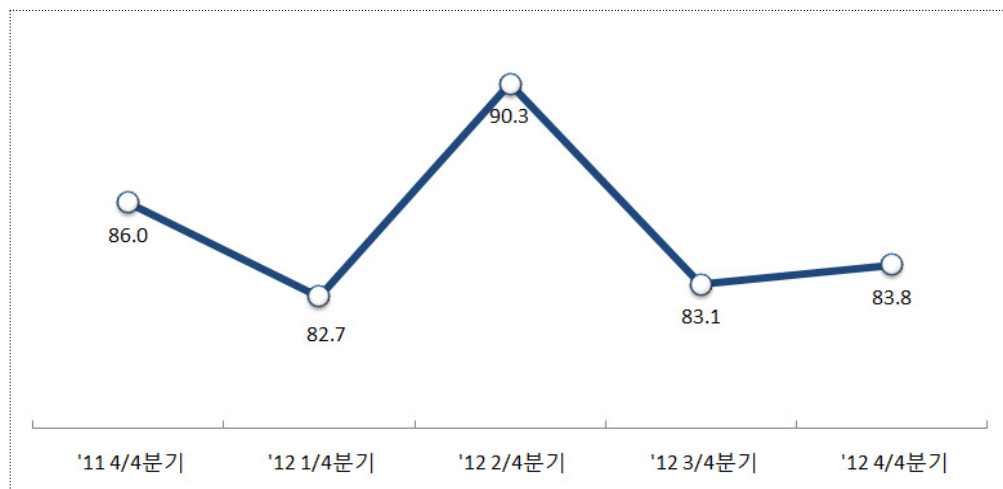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나 점진적 회복세 기대

□ 2012년 하반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소폭 개선

- 2012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83.8로 전분기 대비 0.7p 상승
- 2012년 3/4분기에는 83.1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다시 소폭 상승세로 전환
- 유로존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높은 곡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나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현재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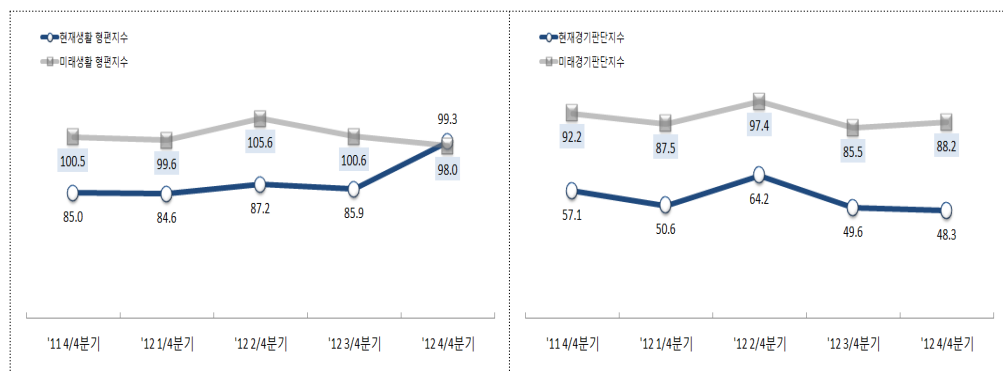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소폭 하락

- 2012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3.4p 상승한 99.3,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6p 하락한 98.0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4분기 연속 평균 85.7을 유지하다가 4/4분기에는 기준치(100)에 가깝게 상승하여 생활형편이 개선되었음을 시사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연속 하락하여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으며 4/4분기에는 98.0을 기록하여 큰 폭의 개선은 없을 전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소폭 상승
- 2012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한 48.3이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 대비 2.7p 상승한 88.2를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2년 2/4분기를 제외하고 1년 연속 하향세
 -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재와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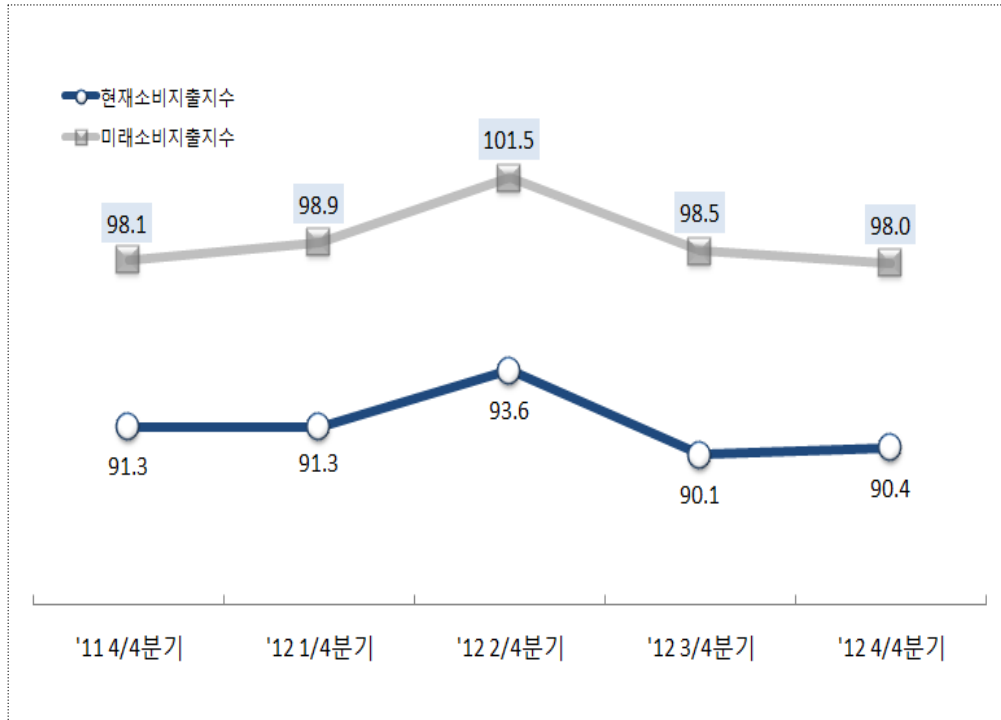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와 경기판단지수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한 기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하락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90.4를 기록하였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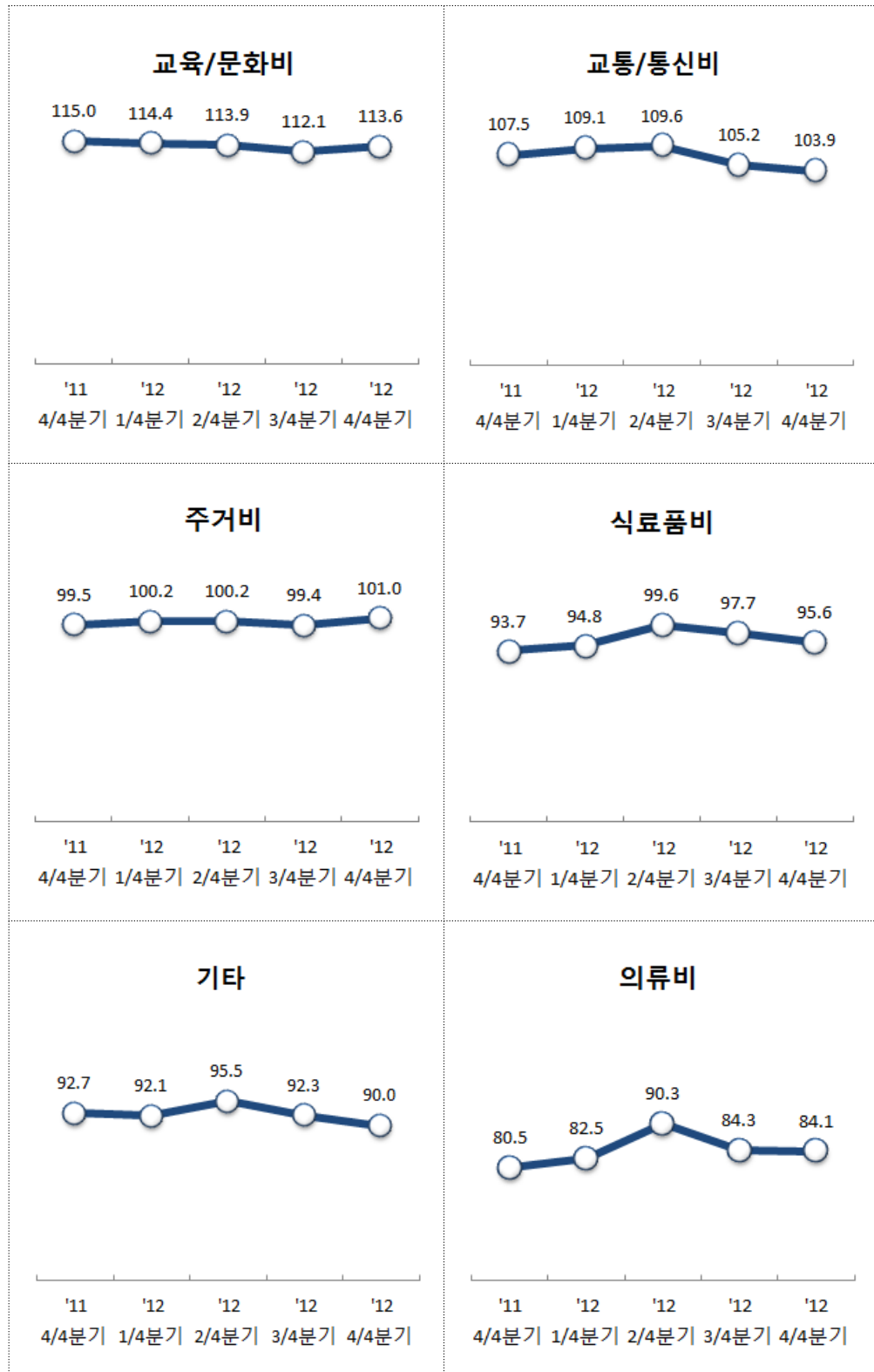
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0.5p 하락한 98.0을 기록

- 현재 소비심리는 미미하게 개선되었으나 향후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심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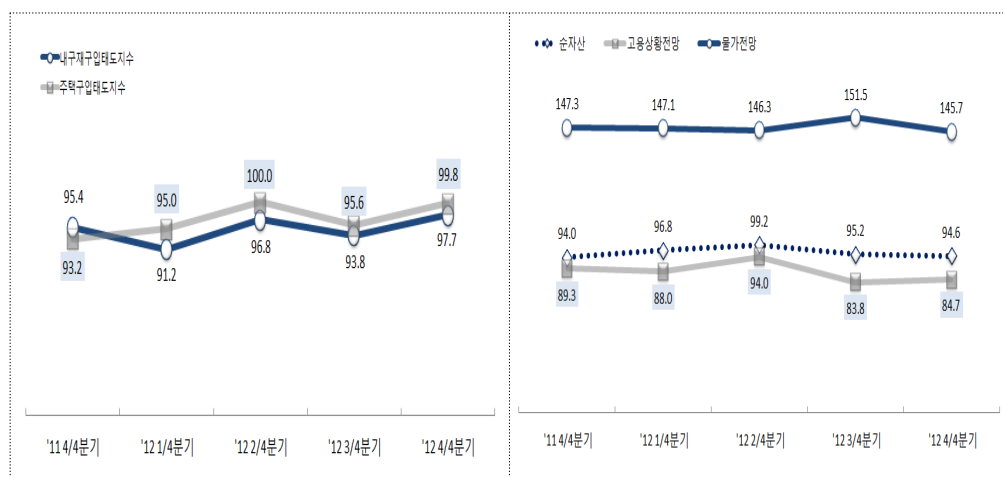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품목별로는 교육, 교통, 주거비에서 미래 소비지출이 증가할 전망
- '교육/문화비(113.6)', '교통/통신비(103.9)', '주거비(101.0)'에서 기준치(100)를 상회
- '식료품비(95.6)', '기타(90.0)', '의류비(84.1)' 순으로 향후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



[그림 7]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
 - 2012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3.9p 상승한 97.7,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4.2p 상승한 99.8을 기록
 - 주택가격 하락과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에 기인하여 내구재와 주택구입의 시기로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증가했음을 시사
- 순자산과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물가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
 - 2012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 대비 5.8p 하락한 145.7로 2011년 4/4분기 이래 최저값을 기록하여 물가불안 심리는 다소 안정
 - 2012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분기 대비 0.6p하락한 94.6을 기록한 반면, 「고용상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0.9p 상승한 84.7을 기록
 -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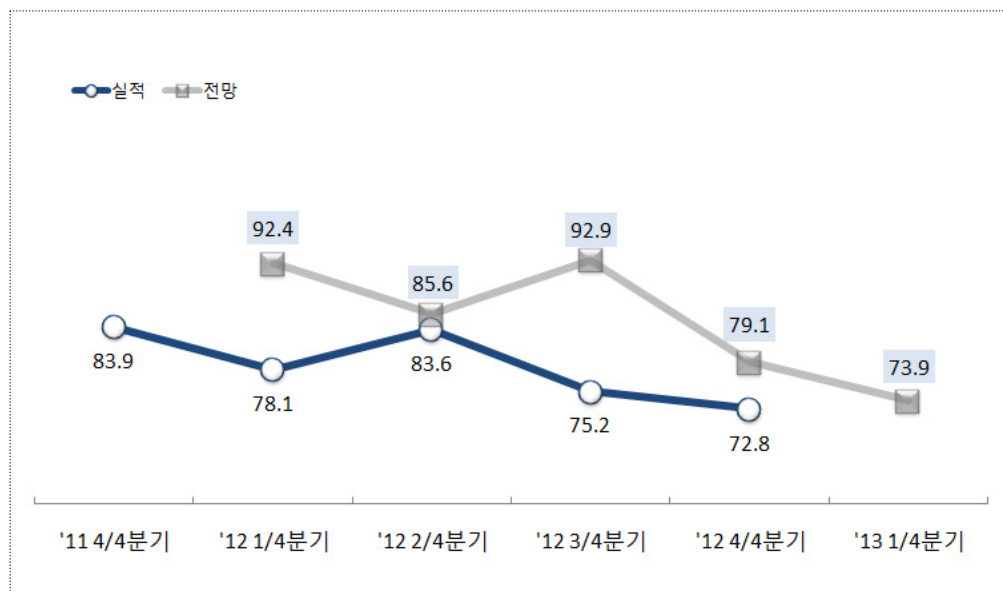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내구재,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Ⅲ. 서울의 4/4분기 기업 체감경기

현재와 향후의 기업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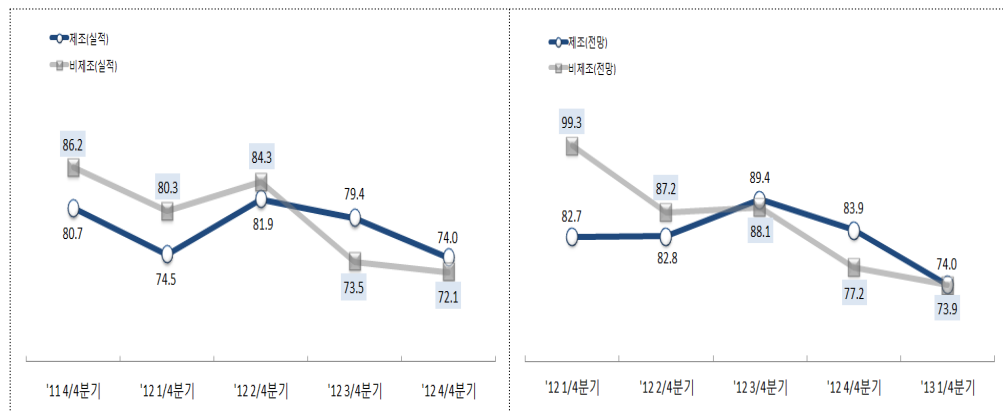
- 업황실적 및 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하여 서울소재 기업의 체감경기가 부정적임을 시사
 - 서울의 2012년 4/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2.4p 하락한 72.8,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5.2p 하락한 73.9를 기록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최근 3년이래 최저값을 기록하며 2012년 2/4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환경 역시 부정적인 전망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 9] 서울의 업황지수

□ 제조업의 체감경기는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

- 2012년 4/4분기 「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5.4p, 1.4p 하락하여 74.0, 72.1을 기록
- 지난 분기와 대조적으로 이번 분기에는 제조업이 크게 하락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지수 값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제조업 업황전망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74.0, 73.9로 전분기 대비 9.9p, 3.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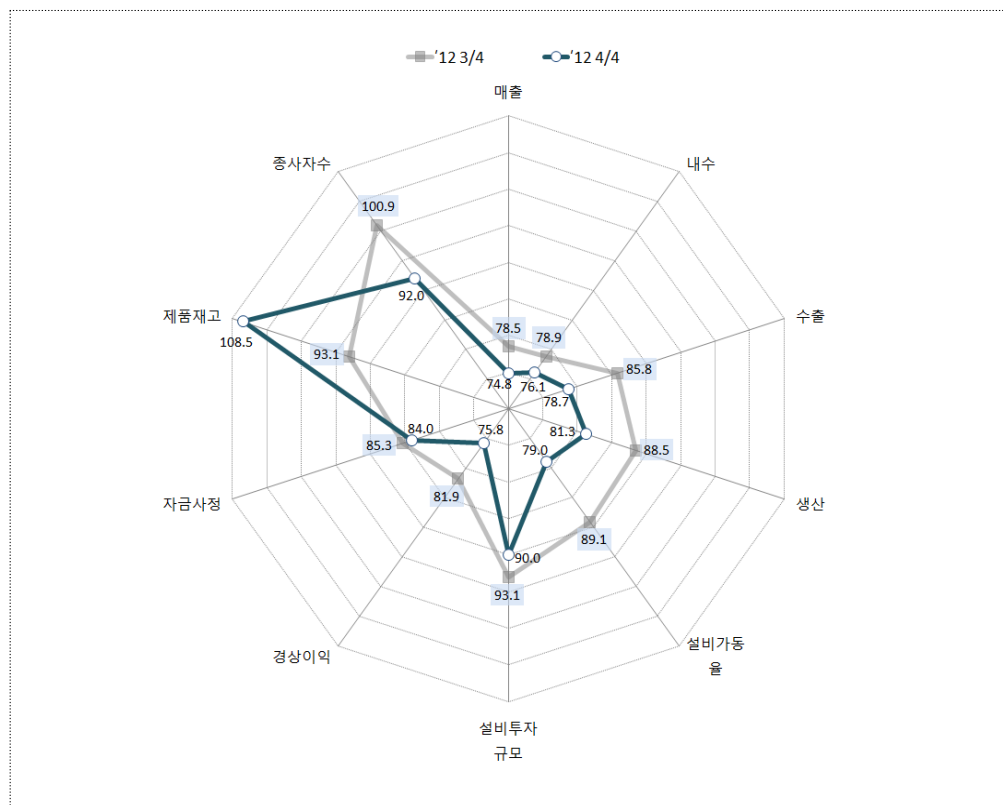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산업별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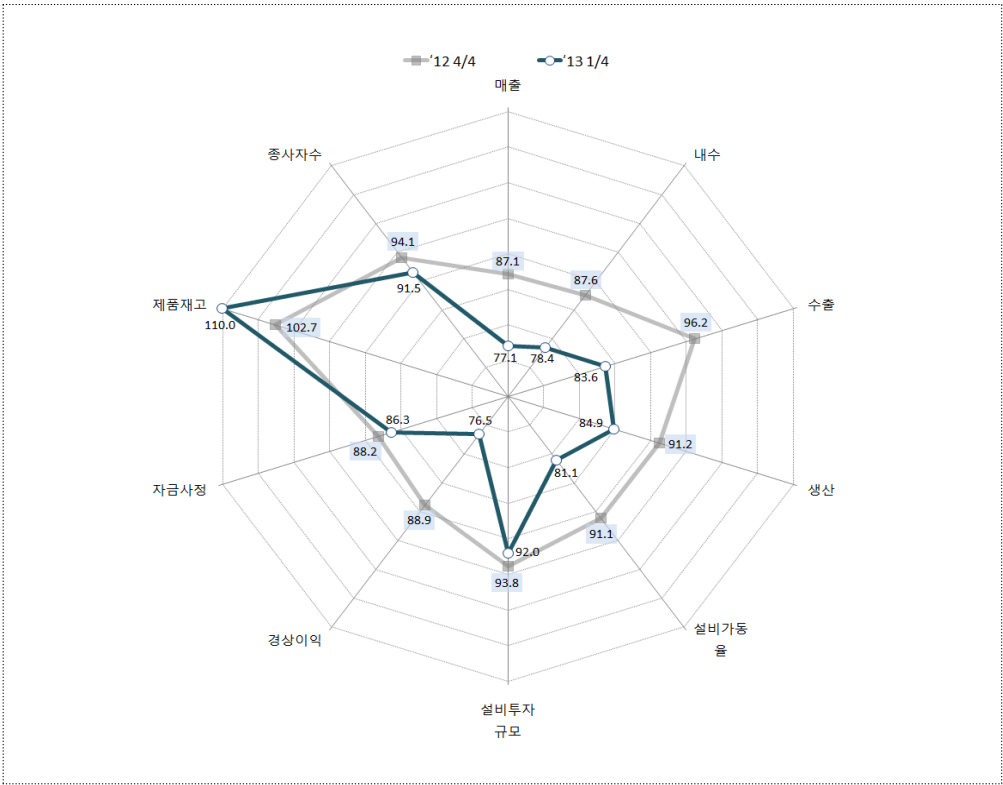
□ 서울소재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

- 「설비가동률지수」와 「생산지수」, 「수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10.1p, 7.2p, 7.1p 하락한 79.0, 81.3, 78.7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
-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상이익」 또한 전분기 대비 6.1p 하락하여 75.8을 기록
-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장기화 등 대외 요인이 기업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향후 기업 경영여건 또한, 대부분의 지수가 기준치 100을 크게 하회하여 경영 상황이 위축될 전망
- 2013년 1/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경영여건을 보면, 특히 「수출전망지수」와 「경상이익전망지수」에서 전분기 대비 12.6p, 12.4p 감소하여 83.6, 76.5를 기록하며 큰 폭 하락
 - 기업 경영의 기대심리는 「경상이익전망지수」에서 76.5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여 재정 상황이 특히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 연말·연시 등 계절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서울의 기업경영 환경은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



[그림 11]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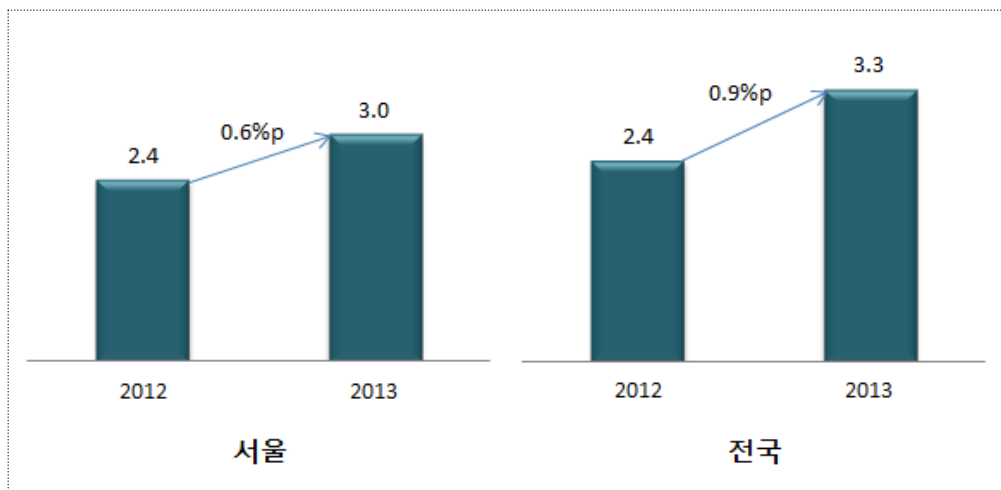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Ⅳ. 2013년 서울경제 전망

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은 ‘상중하고(上中下高)’ 예상

- 서울경제는 2013년 상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
 - 서울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년대비 0.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의 성장률 3.3%보다는 하회
 -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지속적인 감소세이고 기업의 업황 전망지수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2013년 상반기 서울의 경제성장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민간소비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2013년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에 따라 소폭 성장 전망
 - 서울의 경제성장률 성장폭(0.6%p)은 전국(0.9%p)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 기조의 유지 및 활성화 대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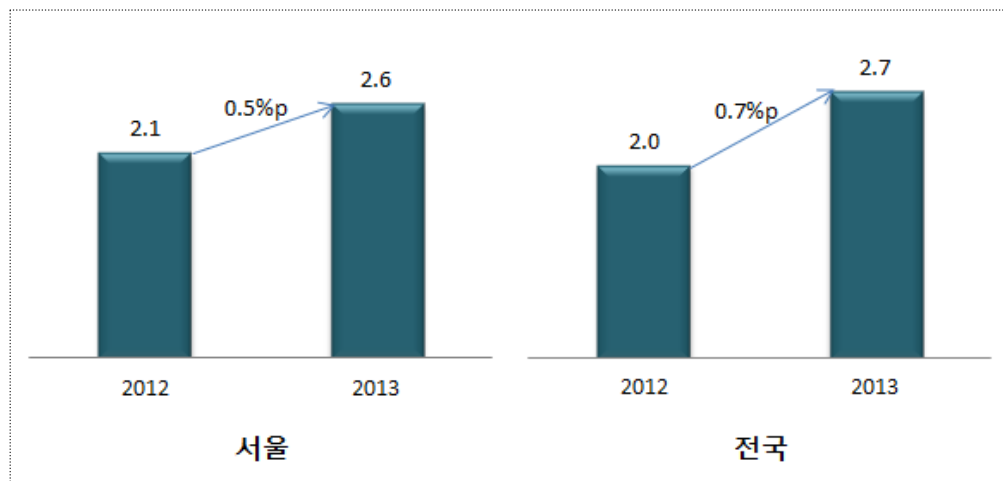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 10월), KDI(2011. 11월), HRI(2012. 9월), LGRI(2012.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13]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13년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2.6% 증가할 전망

- 소비심리의 소폭 개선으로 민간소비지출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
 - 체감경기는 회복 중이나 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가 98.0으로 기대심리가 높지 않아 상반기 소비 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안정과 고용시장 개선 등 영향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년대비 0.5%p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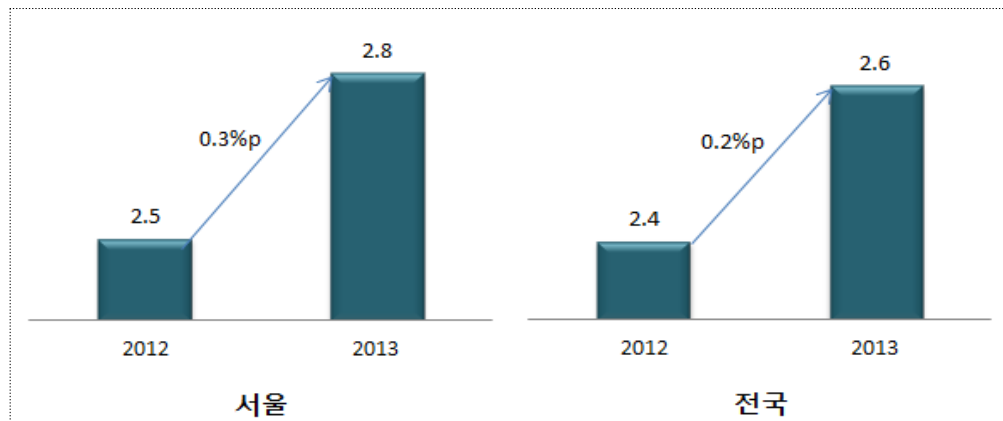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 10월), KDI(2011. 11월), HRI(2012. 9월), LGRI(2012.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14]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 2013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8%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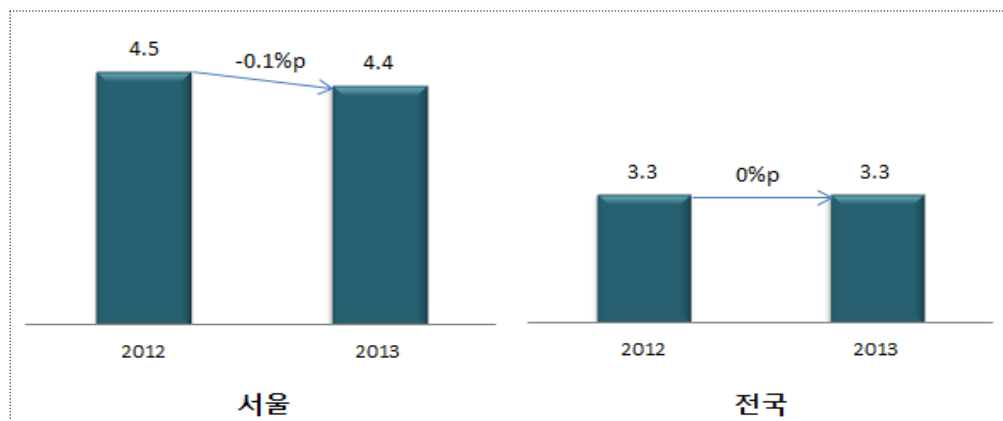
- 2013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와 경제성장률의 개선으로 인해 전년대비 0.3%p 높은 2.8% 상승 전망
 -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상승폭이 전국(0.2%p)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서울의 서비스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는 크지 않을 전망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 10월), KDI(2011. 11월), HRI(2012. 9월), LGRI(2012.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15]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2013년 서울의 실업률은 4.4%로 2012년 대비 0.1%p 소폭 감소
 - 2012년에 이어 2013년 상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전망
 - 공공서비스 부문의 고용 계획과 대선 공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2013년 서울 취업자수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울의 장년층(50~59세) 취업률이 최근 10개월간 평균 4.1%로 증가하는 등 연령별로 장년층 이상의 취업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주 :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2012. 10월), KDI(2011. 11월), HRI(2012. 9월), LGRI(2012. 9월) 전망치 평균

[그림 16]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V. 요약 및 시사점

서울경제는 2012년 하반기 하락세의 소폭 개선과 2013년의 점진적 회복 전망

- 2012년 하반기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거나 서울 소재 기업의 체감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
 - 2012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한 83.8을 기록
 - 「생활형편지수」는 99.3으로 전분기 대비 12.1p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경기판단지수」는 1.3p 하락한 48.3으로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
 - 2012년 4/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전분기 대비 2.4p 하락한 72.8을 기록
 - 「생산」, 「수출」, 「경상이익」 등의 주요 경영지표가 전분기 대비 각각 7.2p, 7.1p, 6.1p 하락하여 서울 소재 기업의 경영실적을 위축
- 2013년 서울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0%로 2012년 대비 0.6%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완화에 기인하여 2012년 보다 0.3%p 상승한 2.8%로 안정화 예상
 - 물가안정에 따라 소비는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래소비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므로 2012년 대비 0.5%p 상승한 2.6% 전망
 - 2012년 하반기에 이어 2013년 상반기에도 고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의 실업률은 2012년보다 0.1%p 감소한 4.4% 전망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 서울시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 정책을 강화
 -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시장에 청년 인력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경영환경을 높이는 데 주력
 - '중소기업 인턴십', '서울 R&D'를 통한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술개발비 지원 등으로 청년층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서울의 산업기반을 이루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유지
 - 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92%를 차지하여 서울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업종의 육성 및 보호 필요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이나 영세상인 적합업종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
 - 현재 진행중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 및 홍보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희망홍보 사업'과 같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유지 및 보완
- 경제 성장의 활력소가 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환경 여건 조성
 - 서울의 주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환경 조성을 추진
 - 한국 관광객의 약 70%를 담당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 숙박, 도·소매 유통 산업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

- 도심에 특화된 중소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첨단·특허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박희석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2년 4/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1년 4/4분기	86.0	85.0	100.5	57.1	92.2	95.4	93.2
2012년 1/4분기	82.7	84.6	99.6	50.6	87.5	91.2	95.0
2012년 2/4분기	90.3	87.2	105.6	64.2	97.4	96.8	100.0
2012년 3/4분기	83.1	85.9	100.6	49.6	85.5	93.8	95.6
2012년 4/4분기	83.8	99.3	98.0	48.3	88.2	97.7	99.8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1년 4/4분기	91.3	98.1	94.0	89.3	147.3
2012년 1/4분기	91.3	98.9	96.8	88.0	147.1
2012년 2/4분기	93.6	101.5	99.2	94.0	146.3
2012년 3/4분기	90.1	98.5	95.2	83.8	151.5
2012년 4/4분기	90.4	98.0	94.6	84.7	145.7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1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2012년 1/4분기	2012년 2/4분기	2012년 3/4분기	2012년 4/4분기	2013년 1/4분기
매출	89.5	88.3	87.6	78.5	74.8	91.7	96.9	89.3	87.1	77.1
내수	90.5	89.6	87.2	78.9	76.1	93.0	98.5	88.6	87.6	78.4
수출	87.3	84.1	89.0	85.8	78.7	88.9	92.4	90.8	96.2	83.6
생산	88.2	82.7	89.8	88.5	81.3	89.2	86.8	92.9	91.2	84.9
설비가동률	88.7	89.6	95.6	89.1	79.0	91.7	89.4	98.0	91.1	81.1
설비투자규모	86.5	90.2	83.6	93.1	90.0	87.4	90.7	85.1	93.8	92.0
경상이익	90.0	86.4	86.9	81.9	75.8	92.3	95.1	89.7	88.9	76.5
자금사정	93.2	89.5	88.5	85.3	84.0	95.1	92.8	94.3	88.2	86.3
제품재고	101.5	101.3	107.1	93.1	108.5	100.9	103.2	107.3	102.7	110.0
종사자수	92.2	92.8	97.9	100.9	92.0	94.1	92.5	97.3	94.1	91.5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2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12년 11월초).